

#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평생학습 발전방안

이 영 구 |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원  
김 만 희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연구위원

## 1. 서론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궁극에 이르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해야 생명이 지속된다는 뜻으로 유교사상의 3대 경전중의 하나인 주역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라 한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하며, 변화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선인들의 진리인 것이다. 이 말은 지식기반사회, 글로벌사회, 정보화사회로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수많은 정보들의 섬 없는 이동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 시

대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차원의 아낌없는 학습의 노력과 조직과 사회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랭그랑(Paul Lengrand, 1965)이 주창한 평생교육은 미국의 경영학자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68)가 처음 사용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up>1)</sup>가 수행해야 할 가장 적합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복잡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현시대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보수집 능력과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

1)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1968년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저술한 「단절의 시대」의 내용 중 지식사회를 다루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식근로자의 특성은 풍부한 지적재산, 투철한 기업가 정신, 평생학습 정신, 강한 창의성, 비관료적인 유성성을 갖고 있으며 평생직장인보다 평생직업인이라는 신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심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및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평생학습네트워크 사업,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등을 시행,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시민회관 등의 기존 시설들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추진된 평생학습관련 현황과 사례들을 충남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향후 충남지역에서 필요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平生教育) 또는 평생학습(平生學習)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비형식적인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의 학습활동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에서 발전되어 왔는데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자원을 탐구하며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노력에 대한 Houle과 Tough의 연구들(Houle, 1961; Tough, 1967; 1971; 1979)로 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도움 없이 학교 밖에서 성인 스스로 자신이 학습을 활발히 계획하여 수행하는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교사없이 학습자 혼자 학습활동을 수행할 때 성인 학습자가 거치게 되는 과정적 절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절차를 '자기교수(self-teaching)'의 12단계로 제시하면서 학습과정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있어서 학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초창기의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평생교육으로 발전하였다. 한승희(2005)는 교육이라는 의미 속에는 평생동안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존재하지만 '평생'이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쓰는 것이며 이는 학교 외의 교육도 포함하여 교육영역을 확장시키고 교육민주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평생교육이란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난 일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생학습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의 관념적 한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존의 학교교육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평생교육영역에서는 성인 학습자가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생학습사회란 평생학습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은 개인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며 기업은 학습조직을 통해 근로자가 지식근로자가 되도록 지원하며, 국가 또한 정책적으로 국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성인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즉,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전하영, 2007).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개인의 영달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한 지역과 사회의 경쟁력 제고 및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현 시대의 교육트렌드가 된 것이며, 개인과 조직, 사회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 1) 우리나라의 평생학습활동 현황<sup>2)</sup>

2008년도에 발표한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25~64세에 이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형식교육(학교교육)과 비형식교육(직장연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강좌)을 포괄하여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알아본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2008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6.4%, 형식교육 4.1%, 비형식교육 23.9%로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평생학습 참여율은 3.4%, 형식교육 참여율은 1.6%p,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5%p 하락하였다.<sup>3)</sup>

평생학습 참여율이 하락한 이유는 고소득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승한 반면, 실업인구·비경제활동인구·중간 소득이하 집단의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참여율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08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국가들의 2005년도 평균치인 26%와 비슷한 수준이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참여율인 18%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평생학습 참여율이 하락하였으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이 상승한 것은 국민들이 취업이나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년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내용을 재수정

3) 2007년 평생학습 참여율 : 29.8%(형식교육 참여율 5.7%, 비형식교육 참여율 26.4%)

4) 2007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은 9.2%, 참여시간은 104.4시간임. OECD 국가 평균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8%, 평균 참여시간은 388.6시간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편임

〈표 1〉 2008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구 분	전체참여율 (형식,비형식)	학습범주별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	(초기교육단계 학생 제외)	전체	(직업관련)
전 체	26.4 (▽3.4)	4.1 (▽1.6)	2.4 (▲0.1)	23.9 (▽2.5)	11.7 (▲2.5)
성 별					
남자	24.4 (▽4.5)	4.8 (▽2.4)	2.2 (▲0.2)	21.4 (▽3.2)	14.0 (▲1.0)
여자	28.4 (▽2.3)	3.4 (▽0.8)	2.6 (▲0.1)	26.3 (▽1.9)	9.4 (▲4.1)
연 령					
25-34세	32.7 (▽3.6)	9.7 (▽5.6)	3.7 ( - )	26.4 (▽0.3)	14.8 (▲4.1)
35-44세	27.5 (▽1.7)	2.8 (▲0.9)	2.8 (▲1.1)	26.0 (▽2.4)	12.4 (▲2.6)
45-54세	21.3 (▽5.2)	1.5 (▽1.0)	1.5 (▽0.8)	20.5 (▽4.9)	9.4 (▲1.8)
55-64세	20.8 (▽3.1)	0.2 (▽0.5)	0.2 (▽0.5)	20.6 (▽2.9)	8.1 (▲0.6)
학 력					
중졸이하	14.9 (▽1.9)	0.4 (▲0.2)	0.4 (▲0.2)	14.5 (▽2.1)	6.3 (▲0.1)
고졸	22.1 (▽2.4)	4.7 (▽1.4)	1.8 (▲0.1)	19.3 (▽1.3)	9.0 (▲3.3)
대졸이상	34.3 (▽5.1)	4.8 (▽2.3)	3.5 (▽0.1)	31.5 (▽4.1)	16.0 (▲2.3)
경제활동상태					
취업	24.7 (▽1.8)	3.1 (▲0.5)	2.2 ( - )	23.1 (▽2.1)	13.9 (▲2.0)
실업	<b>27.3 (▽8.9)</b>	<b>6.0 (▽10.8)</b>	2.1 (▽1.9)	25.2 (▽0.4)	16.1 (▲3.0)
비경제활동	30.4 (▽5.2)	6.4 (▽3.8)	2.7 (▲0.5)	25.7 (▽3.4)	5.6 (▲3.0)
지 역					
서울 및 광역시	24.0 (▽5.4)	4.1 (▽3.4)	2.5 (▲0.1)	21.5 (▽3.8)	8.7 (▲0.7)
중소도시	29.0 (▽0.3)	4.5 (▲0.6)	2.4 (▲0.1)	26.2 (▽0.7)	14.3 (▲5.4)
농어촌	27.9 (▽3.8)	3.2 (▽1.0)	1.8 (▽0.1)	25.8 (▽2.5)	14.9 (▲1.9)

※ 2008년 Base: 전체(n=26,927,421), 형식교육 참여자(n=1,104,914), 비형식교육 참여자(n=6,430,172)

※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6.4%로 2007년도 대비 3.4% 하락하였고, 형식교육은 4.1%, 비형식교육은 23.9%로 2007년 대비 각각 1.6%p, 2.5%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7%, 평균참여시간은 103.4시간으로 2007년 조사결과에 비해 참여율은 2.5%p 증가하고 참여시간은 1시간 감소하였다.<sup>4)</sup>

〈표 2〉 비형식교육 참여율

(단위 : %)

구 분		비형식 참여율	취업/직업 능력	교양문화 관련	시민교육	취미/여가/ 스포츠	성인기초	기타
전체		23.9 (▽2.5)	11.7 (▲2.5)	3.6 (▽1.4)	1.2 (▲0.5)	11.2 (▽1.7)	(▽0.2)	( - )
남자	취업	21.7 (▽3.1)	14.3 (▲1.3)	2.9 (▽0.2)	0.6 ( - )	7.1 (▽2.0)	( - )	(▽0.1)
	실업	18.6 (▽3.7)	9.5 (▽6.7)	2.9 (▽3.3)	1.0 (▲1.0)	5.8 (▲1.3)	( - )	(▽0.7)
	비경제인구	18.6 (▼5.8)	9.9 (▲2.2)	2.7 ( - )	( - )	7.0 (▽5.1)	( - )	( - )
	150만원 미만	15.4 (▼6.1)	11.2 (▲0.5)	0.8 (▽2.4)	1.0 (▲0.5)	2.6 (▽1.9)	( - )	(▽1.2)
	150~300만원	21.8 (▲1.4)	13.6 (▲3.0)	2.9 (▲0.5)	0.3 (▽0.3)	7.6 (▽0.2)	( - )	( - )
	300~500만원	21.3 (▼6.2)	14.1 (▽1.0)	2.8 (▽1.4)	0.6 (▲0.1)	7.0 (▽2.8)	( - )	(▽0.2)
	500만원 이상	26.1 (▽4.9)	16.7 (▲2.1)	5.0 (▲1.1)	1.4 (▲1.0)	9.6 (▽4.1)	( - )	( - )
	여자 취업	26.0 ( - )	12.9 (▲3.3)	3.8 (▽2.3)	1.1 (▲0.2)	12.0 (▽1.0)	( - )	(▽0.3)
여자	실업	35.6 (▲1.5)	26.5 (▲21.8)	1.4 (▲1.4)	3.3 (▲3.3)	8.3 (▼19.5)	( - )	( - )
	비경제인구	26.1 (▽3.5)	5.3 (▲3.2)	5.1 (▽2.6)	2.3 (▲1.3)	18.9 (▽0.3)	(▽0.6)	(▽0.9)
	150만원 미만	15.9 (▼5.9)	5.5 (▽1.2)	1.4 (▽1.4)	(▽0.5)	8.8 (▽0.5)	0.5 (▽1.7)	(▽0.5)
	150~300만원	24.0 (▲1.9)	7.5 (▲4.3)	3.2 (▽2.6)	1.3 (▲0.3)	15.2 (▲1.5)	( - )	(▽0.4)
	300~500만원	26.7 (▼8.0)	8.4 (▲2.4)	4.9 (▽3.7)	2.7 (▲1.8)	15.6 (▽5.9)	( 0.1)	(▽0.8)
	500만원 이상	38.7 (▲1.5)	19.3 (▲11.0)	8.0 (▽0.4)	1.5 (▽0.2)	21.4 (▽1.8)	( - )	(▽0.7)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성인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교육의 연평균 교육비는 453.8만원, 비형식교육의 연평균 교육비는 3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 책임 때문)'가 8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근무시간과 겹쳐서'(40.1%),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33.8%)의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빈번하게 참

여하는 무형식 학습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나 사실 학습(49.0%)'으로 나타났다.

비형식교육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을 분석해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의 경우 남자는 전체 비형식 참여율이 3.7%p(직업관련 6.7%) 감소한 반면에 여자 역시 취미·여가·스포츠 참여율이 19.5%p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는 남자는 취미·여가·스포츠 5.1%p 줄고, 여자는 교양문화관련에서 참여율이 2.6%p 감소하였다.

〈표 3〉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단위 : %, 시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한국	전체	6.3	9.0	16.0	11.7
	남	10.7	11.3	16.5	14.0
	여	3.6	7.2	15.3	9.4
OECD 평균	전체	7.4	17.2	31.5	18.0
	남	8.0	17.9	31.1	18.6
	여	6.3	16.6	32.1	17.4

※출처: OECD평균- 「OECD 교육지표 2008」표C5.1a, 한국-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Base: 전체(n=26,927,421), 참여시간 Base: 직무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자(n=3,146,065)

2008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7%로 2007년 참여율 9.2%와 비교하면 2.5%p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평균 참여율 18%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표 4〉 비형식교육 참여프로그램

(단위 : %)

	스포츠강좌	컴퓨터	외국어	경제·경영	직업교육
전체	24.3	14.1	10.1	10.1	7.5
남자	21.5	15.5	11.8	17.9	11.4
여자	26.5	13.0	8.8	4.0	4.4

※Base: 비형식교육 개별 참여 프로그램 (n=8,854,493)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스포츠 강좌'(24.3%)이고, 그 뒤를 이어 컴퓨터(14.1%), 외국어(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단위 : 시간)

	비형식교육								
	전 체						직업관련(OECD)		
				직업관련(2008평생학습실태조사)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전체	110.4 (▽32.9)	124.6 (▲2.1)	118.2 (▽14.0)	82.6	134.4	103.4	404.7	384.0	388.6
중졸이하	28.3 (▽22.2)	95.2 (▲20.8)	66.6 (▽ 0.3)	9.8	55.0	26.2	242.9	240.8	209.7
고졸	89.1 (▽88.9)	120.8 (▲3.2)	108.9 (▽32.5)	71.8	131.4	98.6	393.4	370.1	370.5
대졸이상	130.8 (▽ 5.1)	132.4 (▽4.4)	131.6 (▽ 4.8)	97.5	146.0	116.0	684.1	685.9	669.0

※2008 Base: 전체(n=26,927,421),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자(n=3,146,065)

※출처: OECD평균-「OECD 교육지표 2008」표C5.1a, 한국-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2008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평균참여시간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낮은 참여 시간이다.  
은 103.4시간으로 OECD 평균치(388.6시간)와

〈표 6〉 평생학습 참여자의 연평균 1인당 교육비

(단위 : 만원)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형식·비형식)
전체		453.8 (▽68.7)	33.7 (▽14.2)	101.0 (▽41.8)
성	남자	495.8 (▽51.9)	26.2 (▽26.4)	121.1 (▽60.1)
	여자	393.5 (▽86.0)	39.9 (▽4.0)	83.7 (▽22.8)
연령	25-34세	518.8 (▽60.0)	42.5 (▽34.2)	189.2 (▽110.2)
	35-44세	363.4 (▲9.5)	29.9 (▽7.6)	65.8 ( 6.5)
	45-54세	219.0 (▽132.2)	36.5 (▽0.6)	51.0 (▽17.4)
	55-64세	67.2 (▽71.3)	17.9 (▽12.9)	18.4 (▽16.1)
학력	중졸이하	25.2 (▽74.8)	8.3 (▽1.6)	8.7 (▽2.0)
	고졸	433.1 (▽121.3)	28.0 (▽1.6)	116.1 (▽46.2)
	대졸이상	485.7 (▽11.3)	41.0 (▽23.6)	105.0 (▽43.0)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22.4 (▽161.4)	32.0 (▽14.9)	100.5 (▽89.3)
	중소도시	539.2 (▲130.6)	38.5 (▽25.4)	119.0 (▲6.2)
	농어촌	296.1 (▽126.0)	26.9 (▲5.6)	58.6 (▽16.7)

※ 1인당 평생학습 투자비용은 '형식교육 지출액' 및 '비형식교육 지출액'을 합한 금액임.  
 ※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임.  
 ※ Base: 형식교육 참여자(n=1,104,914)  
 ※ 비형식교육 Base: 비형식교육 참여자(n=6,430,172)  
 ※ 전체 Base: 형식·비형식 참여자(n=7,108,965)  
 ※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2008년도 1인당 연간 평생학습 교육비는 101만원으로 2007년(142.8만원)과 대비하여 41.8만원이 감소하였다. 연평균 형식교육의 교육비는 453.8만원, 비형식교육의 교육비는 33.7만원으로 2007년 조사결과(각각 522.5만원, 47.9만원)와 비교했을 때, 형식교육 68.7

만원, 비형식교육 14.2만원이 각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과 대비하여 형식교육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여자(86만원)가 남자(51.9만원)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비형식교육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남자(26.4만원)가 여자(4만원)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표 7〉 형식교육 참여시간

(단위 : 시간)

	형식교육					
	전 체			(초기교육단계 참여 학생 제외)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전체	556.5 (▲6.7)	546.0 (▽73.1)	552.2 (▽23.2)	314.5 (▽49.3)	383.9 (▽135.6)	352.2 (▽97.7)
중졸이하		310.1 (▽265.9)	310.1 (▽265.9)		310.1 (▽265.9)	310.1
고졸	775.2 (▲145.1)	712.3 (▽106.7)	749.1 (▲68.3)	573.2 (▲225.5)	406.2 (▽123.4)	464.9
대졸이상	357.9 (▽96.1)	395.4 (▽119.4)	372.5 (▽109.2)	226.7 (▽147.2)	374.4 (▽140.1)	296.3

※ Base: 전체(n=26,927,421)  
 ※ 형식교육 Base: 전체(n=1,109,914)/초기교육단계 참여 학생 제외(n=634,709)  
 ※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2008년 형식교육 참여시간은 552.2시간으로 2007년(575.4시간) 대비 23.2시간 감소하였는데 남자는 6.7시간 소폭 증가한 반면, 여자는 73.1시간이나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28.4%)이 남성(24.4%)보다 4.0% 높게, 저연령층(32.7%)이 고연령층(20.8%)보

다 11.9% 높게, 대졸이상 고학력 집단(34.3%)이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14.9%)보다 19.4% 높게, 비경제활동인구(30.4%)가 취업자(24.7%)보다 5.7% 높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여 장애 요인

(단위 : %, 중복)

	교육훈련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근무시간과 겹쳐서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서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전 체	33.8	40.1	81.6	20.7	5.8	3.7
성별						
남자	28.4	62.6	64.2	14.4	3.8	2.1
여자	37.6	24.5	93.7	25.0	7.2	4.9
연령						
25~34세	41.8	49.6	84.3	15.6	4.8	1.1
35~44세	36.3	43.2	86.8	14.8	6.3	1.8
45~54세	26.4	30.6	73.2	31.5	7.6	4.9
55~64세	14.7	18.1	74.5	33.5	4.4	16.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7.6	23.7	58.6	38.3	2.9	13.6
고졸	40.4	39.9	85.9	16.6	6.9	2.9
대졸이상	32.0	44.0	83.4	20.0	5.6	2.2
월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2.0	29.3	47.9	40.0	1.7	7.1
150~300만원 미만	39.4	41.7	87.4	17.7	5.6	2.5
300~500만원 미만	28.9	37.5	81.7	16.3	7.2	3.2
500만원 이상	28.4	37.9	100.2	25.1	6.3	5.3
무응답	34.8	88.7	64.7	17.2	4.5	3.2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0.7	45.8	84.5	12.7	7.5	3.3
중소도시	29.4	32.9	82.6	16.6	5.0	4.8
농어촌	23.9	40.4	70.6	54.5	3.0	2.5

※Base: 참여 희망 교육이나 학습이 있는 응답자 (n=9,410,530)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 책임 때문)'가 8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근무시간과 겹쳐서'(40.1%),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33.8%)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가 93.7%로 남자 64.2%보다 높아 시간의 제약을 더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겹쳐서'가 62.6%로 여자(2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 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비용이 비싸서', '시

간이 없어서'를 장애요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참여효과는 전반적으로 형식교육의 성과가 비형식교육의 성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비형식교육의 성과가 높은 반면, 직업적·사회적 관점에서는 형식교육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형식교육의 경우 스포츠 강좌 등에 대한 높은 참여율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참여하기 때 문임을 알 수 있다.

직업관련-비형식교육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아직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나, 작년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을 볼 때 향후에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 및 정부차원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재고해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 2)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의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인 개인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Restructuring)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의 연계를 이룸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평생교육정보망, 2009).

평생학습도시는 개별학습과 조직학습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적자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한편으로는 경제적 생산성 제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결속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학습경제가 요구하는 지적자본이 충분한 지역사회를 형성한다(이희수, 2003).

이렇게 볼 때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동은 지식기반사회의 지역혁신 전략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확대 지원과 평생학습을 이용한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는 궁극적으로 학습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송두범, 2006).

세계적으로 학습도시화 사업은 1979년 4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가케가와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가운데 학습도시의 선구적 모범사례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 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사회적 통합·도시경영 합리화·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습도시는 경제적 발전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고 개인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제

고하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여 더불어 잘 살며, 정보·지식의 격차를 해소하며,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또한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행정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습을 중심으로 종합행정·지방행정·복지행정을 구현하며, 기존의 학습자원들을 연계·활용하여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한다(평생교육정보망, 2009).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표 9〉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연도	선 정 도 시
2001	광명시, 진안군, 유성구
2002	제주시, 부천시, 해운대구
2003	순천시, 서귀포시, 연수구, 거창군, 안동시
2004	관악구, 이천시, 청주시, 금산군, 전주시, 목포시, 칠곡군, 창원시
2005	서울 양천구, 서울 성북구, 부평구, 수원시, 구리시, 단양군, 제천시, 부여군, 광주 남구, 익산시, 대구 동구,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 경남 남해
2006	서울 영등포구, 부산 연제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울주군,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삼척시, 화천군, 진천군,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여주시, 광양시, 곡성군, 양산시, 하동군
2007	서울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안양시, 강원 강릉시, 횡성군, 충남 서천군,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2008	지정지역 없음
계	76개 도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는 총 76개가 지정되어 있다(2008년에는 지정이 없었음). 최근 학습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지자체들이 증가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안 된 지자체들도 평생교육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정도시간의 활성화 정도에는 편차가 심하여 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도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3) 충청남도의 평생학습활동 현황

충청남도는 지난 2008년 10월 30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에 도지사, 부의장에 부교육감이 선정되었으며,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 주요임무

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평생교육지원 업무 기관간 협력과 조정, 평생교육 진흥정책 제도개선 등으로 도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전 시·군의 학습도시화'를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현재 16개 시·군 중, 7개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금산군(04년), 부여군(05년), 서산시(06년), 태안군(06년), 아산시(06년), 천안시(07년), 서천군(07년)과 같으며, 이외의 시·군에서도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전 시·군이 학습도시로 지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광역차원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전 시·군의 학습도시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양병찬(2007)이 주장한 학습도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중 하나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즉 대부분의 평생교육 담당 실무자들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실무자들이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연계·협력을 가능하게 할 지원기구 혹은 조력자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역할을 시청의 평생교육담당과 평생교육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실무자 회의, 통합 연수, 평생교육 영역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을 토대로 북부권 네트워크사업(2007),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통합네트워크사업(2009)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의의 의미에서 광역적 학습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도시화를 주창하면서도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정된 학습도시를

〈표 10〉주제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주 제 구 분						
	계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총 계	61,806(100%)	7,455(100%)	1,638(100%)	12,270(100%)	19,151(100%)	18,238(100%)	3,054(100%)
서울특별시	13,017(21.1%)	3,033(40.7%)	210(12.8%)	3,223(26.3%)	3,109(16.2%)	3,162(17.3%)	280(9.2%)
부산광역시	3,600(5.8%)	148(2.0%)	82(5.0%)	415(3.4%)	1,293(6.8%)	1,041(5.7%)	621(20.3%)
대구광역시	2,769(4.5%)	643(8.6%)	90(5.5%)	337(2.7%)	937(4.9%)	696(3.8%)	66(2.2%)
인천광역시	2,062(3.3%)	216(2.9%)	71(4.3%)	286(2.3%)	777(4.1%)	661(3.6%)	51(1.7%)
광주광역시	1,432(2.3%)	97(1.3%)	29(1.8%)	420(3.4%)	341(1.8%)	478(2.6%)	67(2.2%)
대전광역시	1,007(1.6%)	200(2.7%)	12(0.7%)	296(2.4%)	258(1.3%)	228(1.3%)	13(0.4%)
울산광역시	1,297(2.1%)	222(3.0%)	14(0.9%)	523(4.3%)	246(1.3%)	167(0.9%)	125(4.1%)
경기도	14,702(23.8%)	1,268(17.0%)	466(28.4%)	2,249(18.3%)	5,459(28.5%)	4,663(25.6%)	597(19.5%)
강원도	1,122(1.8%)	47(0.6%)	41(2.5%)	177(1.4%)	302(1.6%)	409(2.2%)	146(4.8%)
충청북도	1,734(2.8%)	39(0.5%)	75(4.6%)	426(3.5%)	626(3.3%)	514(2.8%)	54(1.8%)
충청남도	3,414(5.5%)	345(4.6%)	99(6.0%)	845(6.9%)	1,025(5.4%)	877(4.8%)	223(7.3%)
전라북도	4,528(7.3%)	237(3.2%)	109(6.7%)	975(7.9%)	1,322(6.9%)	1,622(8.9%)	263(8.6%)
전라남도	3,525(5.7%)	299(4.0%)	114(7.0%)	831(6.8%)	971(5.1%)	1,100(6.0%)	210(6.9%)
경상북도	2,106(3.4%)	269(3.6%)	41(2.5%)	365(3.0%)	792(4.1%)	559(3.1%)	80(2.6%)
경상남도	4,184(6.8%)	264(3.5%)	137(8.4%)	687(5.6%)	1,270(6.6%)	1,642(9.0%)	184(6.0%)
제주도	1,307(2.1%)	128(1.7%)	48(2.9%)	215(1.8%)	423(2.2%)	419(2.3%)	74(2.4%)

대상으로 주제별, 대상별, 기간별, 인원별 프로그램 수행현황을 조사한 국가평생교육통계를 살펴보면서 지역적 특성과 향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면 충청남도는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1,025건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시민참여 부분이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전북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력 보완이나 문화예술 부분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표 11〉수요대상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수요대상별					
	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
총 계	61,806(100%)	10,784(100%)	8,851(100%)	29,874(100%)	4,152(100%)	8,145(100%)
서울특별시	13,017(21.1%)	1,265(11.7%)	2,551(28.8%)	6,304(21.1%)	829(20.0%)	2,068(25.4%)
부산광역시	3,600(5.8%)	1,021(9.5%)	399(4.5%)	1,470(4.9%)	155(3.7%)	555(6.8%)
대구광역시	2,769(4.5%)	998(9.3%)	251(2.8%)	1,186(4.0%)	178(4.3%)	156(1.9%)
인천광역시	2,062(3.3%)	510(4.7%)	202(2.3%)	834(2.8%)	216(5.2%)	300(3.7%)
광주광역시	1,432(2.3%)	164(1.5%)	125(1.4%)	833(2.8%)	93(2.2%)	217(2.7%)
대전광역시	1,007(1.6%)	77(0.7%)	68(0.8%)	729(2.4%)	52(1.3%)	81(1.0%)
울산광역시	1,297(2.1%)	136(1.3%)	107(1.2%)	926(3.1%)	14(0.3%)	114(1.4%)
경기도	14,702(23.8%)	3,495(32.4%)	2,143(24.2%)	6,850(22.9%)	938(22.6%)	1,276(15.7%)
강원도	1,122(1.8%)	76(0.7%)	253(2.9%)	456(1.5%)	56(1.3%)	281(3.4%)
충청북도	1,734(2.8%)	189(1.8%)	238(2.7%)	1,014(3.4%)	188(4.5%)	105(1.3%)
충청남도	3,414(5.5%)	460(4.3%)	328(3.7%)	1,685(5.6%)	268(6.5%)	673(8.3%)
전라북도	4,528(7.3%)	501(4.6%)	603(6.8%)	2,394(8.0%)	449(10.8%)	581(7.1%)
전라남도	3,525(5.7%)	435(4.0%)	458(5.2%)	1,614(5.4%)	347(8.4%)	671(8.2%)
경상북도	2,106(3.4%)	427(4.0%)	154(1.7%)	1,164(3.9%)	164(3.9%)	197(2.4%)
경상남도	4,184(6.8%)	855(7.9%)	641(7.2%)	1,889(6.3%)	180(4.3%)	619(7.6%)
제주도	1,307(2.1%)	175(1.6%)	330(3.7%)	526(1.8%)	25(0.6%)	251(3.1%)

수요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비 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린이(460건, 4.3%)와 청소년(328건, 3.7%) 관련 프로그램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급격한

노령화현상을 반영하듯이 노인관련 프로그램은 268건, 전국대비 6.5%를 차지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역시 673건으로 전국대비 8.3%로 지역내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교육기간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교육기간				
	계	1개월 미만 <sup>2)</sup>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총 계	61,806(100%)	5,609(100%)	13,427(100%)	30,029(100%)	12,741(100%)
서울특별시	13,017(21.1%)	1,016(18.1%)	3,006(22.4%)	5,558(18.5%)	3,437(27.0%)
부산광역시	3,600(5.8%)	230(4.1%)	943(7.0%)	2,121(7.1%)	306(2.4%)
대구광역시	2,769(4.5%)	64(1.1%)	516(3.8%)	1,973(6.6%)	216(1.7%)
인천광역시	2,062(3.3%)	66(1.2%)	353(2.6%)	1,189(4.0%)	454(3.6%)
광주광역시	1,432(2.3%)	184(3.3%)	373(2.8%)	558(1.9%)	317(2.5%)
대전광역시	1,007(1.6%)	87(1.6%)	193(1.4%)	541(1.8%)	186(1.5%)
울산광역시	1,297(2.1%)	327(5.8%)	436(3.2%)	408(1.4%)	126(1.0%)
경기도	14,702(23.8%)	1,315(23.4%)	2,773(20.7%)	7,656(25.5%)	2,958(23.2%)
강원도	1,122(1.8%)	77(1.4%)	382(2.8%)	412(1.4%)	251(2.0%)
충청북도	1,734(2.8%)	141(2.5%)	327(2.4%)	799(2.7%)	467(3.7%)
충청남도	3,414(5.5%)	527(9.4%)	601(4.5%)	1,498(5.0%)	788(6.2%)
전라북도	4,528(7.3%)	513(9.1%)	954(7.1%)	1,981(6.6%)	1,080(8.5%)
전라남도	3,525(5.7%)	300(5.3%)	780(5.8%)	1,641(5.5%)	804(6.3%)
경상북도	2,106(3.4%)	211(3.8%)	464(3.5%)	1,186(3.9%)	245(1.9%)
경상남도	4,184(6.8%)	310(5.5%)	952(7.1%)	2,078(6.9%)	844(6.6%)
제주도	1,307(2.1%)	241(4.3%)	374(2.8%)	430(1.4%)	262(2.1%)

주: 1) 1개월이상 프로그램만 해당 됨.

2) 1개월이상 프로그램 조사대상 중 교육기간이 1개월미만이지만 교육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

교육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프로그램이 1,49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대비 5.0%로 평균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1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이 527건으로 9.4%를 차

지해 전국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 역시 78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해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주제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수강인원별				
	계	50명 미만	50명~100명미만	100명~150명미만	150명이상
총 계	61,806(100%)	45,103(100%)	8,939(100%)	2,518(100%)	5,246(100%)
서울특별시	13,017(21.1%)	9,723(21.6%)	1,774(19.8%)	525(20.8%)	995(19.0%)
부산광역시	3,600(5.8%)	2,415(5.4%)	637(7.1%)	147(5.8%)	401(7.6%)
대구광역시	2,769(4.5%)	1,658(3.7%)	849(9.5%)	106(4.2%)	156(3.0%)
인천광역시	2,062(3.3%)	1,484(3.3%)	290(3.2%)	106(4.2%)	182(3.5%)
광주광역시	1,432(2.3%)	1,100(2.4%)	195(2.2%)	46(1.8%)	91(1.7%)
대전광역시	1,007(1.6%)	755(1.7%)	134(1.5%)	52(2.1%)	66(1.3%)
울산광역시	1,297(2.1%)	879(1.9%)	328(3.7%)	16(0.6%)	74(1.4%)
경기도	14,702(23.8%)	10,250(22.7%)	2,248(25.1%)	758(30.1%)	1,446(27.6%)
강원도	1,122(1.8%)	754(1.7%)	226(2.5%)	74(2.9%)	68(1.3%)
충청북도	1,734(2.8%)	1,209(2.7%)	184(2.1%)	47(1.9%)	294(5.6%)
충청남도	3,414(5.5%)	2,850(6.3%)	291(3.3%)	98(3.9%)	175(3.3%)
전라북도	4,528(7.3%)	3,552(7.9%)	466(5.2%)	151(6.0%)	359(6.8%)
전라남도	3,525(5.7%)	2,623(5.8%)	367(4.1%)	111(4.4%)	424(8.1%)
경상북도	2,106(3.4%)	1,560(3.5%)	345(3.9%)	82(3.3%)	119(2.3%)
경상남도	4,184(6.8%)	3,322(7.4%)	476(5.3%)	141(5.6%)	245(4.7%)
제주도	1,307(2.1%)	969(2.1%)	129(1.4%)	58(2.3%)	151(2.9%)

수강인원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50명 미만의 적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2,850건으로 전국대비 6.3%를 차지

해 가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체적인 프로그램 횟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100명 미만, 100명~150명 미만,

150명 이상의 프로그램은 각각 291건, 98건 175건으로 전부 3%대를 유지해 지역적 프로그램 수나, 전국비교 비중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도시들의 평생학습환경 즉, 시설 부재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서 수행한 프로그램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수강생이 많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충남의 평생학습도시가 학습자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다만 충남의 경우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가 심하고 직업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고령화 프로그램과 1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보다 중·장기적인 꾸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단순 호기심이 아닌 직업 및 교육, 생활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 5. 결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의 폭발적인

증대로 말미암아 직업구조 변화 및 사회적 이동이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꾸준한 재교육 및 재학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많은 변화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복지사회 실현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 평생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의 평생학습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의 평생학습추진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시행과제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 및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평생학습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첫째, 평생학습정책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 충남은 '전 시·군의 학습도시화'를 정책적 기조로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평생학습정책과제 중에서도 기초지자체의 학습인프라 구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즉 지역별 평생학습추진조직체제 정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광범위하고 긴밀한 평생학습인적네트워크 체계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우선 충남평생학습추진협의회 구성을 단초로 지역평생학

습체제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의 도정계획 및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평생사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정책적 타겟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실직자,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중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원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향후 충남이 나아가고자 하는 도정정책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수인력의 보강과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도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을 보면 평생학습의 생활화부분에 평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확충을 위한 평생학습 계좌제 등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국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환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시민의 학습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인력의 교육 및 보강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1), 「평생교육백서」.  
 송두범(2006),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도시의 연계추진 방안」, 평생학습도시와 인적자원개발.  
 양병찬(2007),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구상",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관계공무원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희수(2003), "OECD평생학습도시 정책동향과 과제", 한일평생학습국제세미나,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p.44-46.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추진 관련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국가평생교육통계연보 2008.  
 OECD(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Paris: OECD.  
 \_\_\_\_\_(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평생교육정보망([www.ill.or.kr](http://www.ill.or.kr))